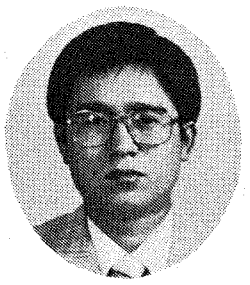
최근 우리나라의 主要死因

"성인병" 예방 및 관리위한 종합대책 마련돼야



천 병 렬
〈경북의대 교수〉

Ⅰ. 현황

우리나라의 보통사망률의 경시적 변화를 보면, 남자의 경우 1982년의 보통사망률이 인구 10만명당 685명이었는데 점차 감소하여 1991년에 623명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표된 1993년이 593명이었다. 여자의 경우 1982년의 보통 사망률이 인구 10만명당 471명이었는데 점차 감소하여 1991년에 451명 그리고 1993년이 448명으로 남자에 비해 사망률이 감소는 작았다. 이와같은 남녀간의 사망률의 차이가 점차 좁혀지는 현상은 남녀간의 평균수명 차이가 좁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사망률의 전반적인 감소현상은 우리나라의 건강수준이 향상되고 있음을 시사하지만 그간의 사회경제학적인 발달의 정도를 고려한다면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즉, 사회경제수준의 발달에 의해 감염병에 의한 사망률은 감소되었지만 주요 3대 사인에 의한 사망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성인병에 의한 사망률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3대사인의 사망률의 변화 양상을 사인별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남자의 경우 암에 의한 사망률은 1982년에 인구 10만명당 71명에서 1991년에 115명, 1993년에 134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뇌졸중과 사고에 의한 사망률도 비슷하게 증가하는 추세였다. 여자의 경우 암에 의한 사망률은 1982년에 인구 10만 명당 43명에서 1991년에 64명, 1993년에 76명으로 증가하였고 역시 뇌졸중과 사고에 의한 사망률도 비슷하게 증가하는 추세였다. 요컨대 남녀 모두에게서 일반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과 뇌졸중 등과 같은 성인병에 의한 사망률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인과 연령별로 사망률의 변화양상을 분석해 보면 남녀 모두에서 암에 의한 사망률은 연령이 많을수록 사망률은 더 높았다.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층에서의 암에 의한 사망률은 64세 미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연도별 사망률의 증가 현상도 이 연령층에서 더욱 뚜렷하였다. 그리고 뇌졸중에 의한 사망률은 남녀 모두에서 연령이 많을수록 사망률은 더 높았으며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층에서의 뇌졸중에 의한 사망률은 64세 미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연도별 사망률의 증가현상은 남녀 모두에게서 관찰되지 않았고 여자에게서 최근에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마지막으로 사고에 의한 사망률은 남녀 모두에서 0~4세의 연령층이 5~14세의 연령층에 비해 2~3배 정도 높아서 0~4세 연령층에 대한 관심이 요망된다. 그이후의 연령층에서는 연령이 많을수록 사망률은 더 높아졌으며 6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사고에 의한 사망률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1990년 이후에 사고에 의한 사망률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Ⅱ. 대책

위와같은 사망률의 변화 양상을 고려해 볼 때 그간의 성인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부적절함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절실하다. 즉, 암에 의한 사망률의 증가는 암 발생률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므로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일차 예방적 차원의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기진단된 암의 높은 생존율을 고려하면 조기진단 기회의 확대도 사망률 감소를 위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암 종류별로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차예방과 조기진단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법이 개발되고 적용된다면 단기적으로는 비록 발생률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결국 상당한 사망률의 감소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뇌졸중의 경우에는 1985년경부터 감소하다가 1990년 이후 최근에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질환으로 이런 사망률의 새로운 증가가 고혈압과 당뇨병과 같은 질병의 발생률 증가 때문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당뇨병과 고혈압의 지속적인 관리가 뇌졸중 사망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고에 의한 사망률의 감소를 위해서는 각종 사고의 정확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며 이 분석된 자료가 있어야 그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에 관한 대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실정에서 국가적인 또는 공공의 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은 기존의 선진국들이 제시한 방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결국 우리나라의 문제는 우리들의 노력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각종 성인병이나 사고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암이나 뇌졸중과 같은 질병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위험요인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연구결과 얻어진 우리의 자료에 의해 일차예방을 위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치료법에 대한 효과를 과학적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근거로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더 나은 치료법을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각종 비과학적인 치료법의 무분별한 적용을 막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동시에 기울여야 한다. 특히 국민들이 잘못된 선전에 현혹되어 전혀 근거없는(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사이비 비법에 의해 최악의 결과를 당하는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전문학회나 정부기관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과대홍보를 근절시키는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고사의 예방을 위한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고사의 원인에 대한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이와같은 문제에 대한 각종 자료의 수집이 미비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유용하게 이용할 자료가 수집될 때까지는 각종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논의를 활발히 개진하여 응급처치식 처방이더라도 시도하면서 개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국가적인 또는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대책을 논의하였지만 성인병과 사고는 개인의 수준에서 상당히 예방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수준에서 해야할 일들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개인은 위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건강과 관련된 행동의 변화도 추구해야 한다. 예를들면, 안전 띠 착용의 습관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 금연, 규칙적인 운동, 긍정적인 인생관 등과 같이 개인이 노력하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식생활의 개선, 암 예방 수칙 등과 같은 이미 알려진 지식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병에 걸린 사람들도 적극적인 자세로 질병에서 회복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이를 최선을 다해 실천해야 할 것이다.

건강생활위한 금연·규칙적인운동·식생활개선·긍정적 인생관 확립필요

최근 우리나라 主要死因

현황과 대책

成人病新聞 創刊15周年을 祝賀합니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주식회사 會長 韓光鎬
한일약품주식회사 社長 禹正益
현대약품주식회사 社長 李漢求
대한의학협회 會長 柳聖熙
주식회사 의학신문사 社長 柳準植
국민병원 院長 宋泰善
醫療法人 吉醫療財團 길병원 理事長 李吉女
성애의원 院長 南宮哲
자생한의원 韓醫學博士 申俊湜
김경옥약국 藥醫學博士 金京玉